

온실가스 배출증가율 “세계 1위”

2000년 5억2100만톤으로 79% 증가 ... 배출량은 미국·중국·러시아 순

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상위 20개국 가운데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로이터통신은 5월 24-26일 일본 Kobe에서 개최되는 선진 8개국(G8)을 비롯한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 환경장관 회동을 앞두고 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)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, 한국은 200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2100만톤으로 1990년보다 79% 증가해 20개국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. 배출량으로는 이태리에 이어 11위를 차지했다.

이란은 1990년 2억8800만톤에서 2005년 3억8000만톤으로 67% 증가하며 2위를 차지했다.

반면,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각각 48%와 18% 감소했다.

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미국으로 2000년 69억2800만톤으로 15% 증가했다. 미국의 2004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0억7400만톤으로 집계됐다.

중국은 49억3800만톤을 배출해 32% 증가하면서 2위, 러시아는 19억5200만톤으로 36% 감소해 3위를 기록했다.

러시아의 뒤를 이은 인디아는 18억8400만톤으로 41% 증가했으며, 다음으로 일본은 13억1700만톤으로 9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일본의 2004년 배출량은 13억5500만톤을 기록했다.

독일은 10억900만톤으로 16% 감소해 6위를 차지했다. 2004년에는 10억1500만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.
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5/20>